영어·모국어 수업…언어장벽 허물어 정체성 확립

2부-해외 다문화 현장을 가다 ⑬ 찰스 김 초등학교 이중언어교육

미국 LA=글·사진 이종행기자

지난달 23일 오후 2시(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LA시의 옥스포드가(Oxford)에 있는 '찰스 김 초등학교'(Charles H. Kim Elementary School) 유치원 교실.

35명의 남·여 원생들이 교실에서 원어민 교사의 율동에 맞춰 영어로 캐럴을 따라 부르고 있었다. 에이미 김(여·Amy Kim) 교사가 원생들에게 "한국어로 '울면 안돼'라는 캐럴을 부를 테니, 따라하세요"라고 말한 뒤 한국어가 적힌 B4용지 크기의 흰색 종이를 칠판에 붙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시에 위치한 '찰스 김 초등학교'(Charles H. Kim Elementary School) . 히스패닉·아시아계 등 다문화 가정 2세들이 필리핀계 여교사에게 스페인어 수업을 듣고 있다.

다인종·다문화 학교…내년부터 한국어 교육

어학실력도 늘어 수업 호응도 높고 성적 우수

김 교사가 양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는 시늉을 하며 "울면 안돼, 울면 안돼…"라고 캐럴을 선창하자, 학생들도 따라 불렀다. 발음도 거의 정확했다. 캐럴이 끝나자, 원생인 셀리(여·7·Selly)가 힘껏 손을 들면서 "again"(한 번 더)을 외쳤다.

김 교사는 "good. once more"(좋아요. 한 번 더 불러요)라고 답했다. 수업 내내 교실은 노래와 웃음 소리로 가득했다.

이 수업은 다문화가정 2세들이 초등학교에 진학하기 전 영어를 배우는 일종의 '예비 스쿨 프로그램'이다. 이민자 2세들이 초등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같은 날 오후 2시30분 1학년 교실. 한 여교사가 수학 문제를 내자, 학생들은 손가락을 이용해 덧셈과 뺄셈을 하기 시작했다. 모든 수업은 스페인어로 진행됐다. 교사의 질문에 학생들도 스페인어로 답했다. 오전 수업은 영어로, 오후 수업은 스페인어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초등학교는 4년 전부터 영어와 산수, 국사 등 교과목을 스페인어를 사용해 지도하며, 단지 스페인어 교육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과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내년부터는 한국어 수업도 포함된다.

중국계 교사인 스테파니 선(여·Stephenie Sun) 교사는 "그동안 정통 미국인들과는 다른 우리의 존재를 항상 느껴왔는데, 모국어를 배우면서 제자리를 찾게 됐다"며 "이제는 영어는 물론, 중국어, 스페인어 등을 배우면서 많은 것을 얻게 됐다"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또 "우리는 모국의 언어를 다 잊은 채로 성인이 됐다"며 "어릴 때 '우리 것은 열등하고, 미국에서 살아온 사람들 것만 우수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언어를 잃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630명. 인종별로는 히스패닉·라틴계가 35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아시안계 287명 ▲필리핀계 60명 ▲아프리카계 29명 ▲백인 또는 비히스패닉계 9명 등의 순이다. 다민족·다문화 국가에서 이민 온 학생들이 서로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면서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다.

특히 학생들은 영어와 모국어, 제2외국어 등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수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다. 학생들의 성적도 다른 학교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하다는 게 교사들의 설명이다. 이중언어 또는 제2외국어를 배우면서 진로도 다양해진 점은 이 초등학교 만의 장점이다.

이 학교 3학년 중국계 아이런쿡 쯔윈(10)양은 "처음에는 중국어로 글을 쓸 줄 몰랐는데, 이 학교를 다니면서 읽고 쓰는 법을 배우게 됐다. 모국어를 배우면서 친구들도 많아졌다"며 "내년부터는 스페인어를 배울 생각이다. 다양한 언어를 배워서 통역가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찰스 김 초등학교'의 케리 걸리(Kerry R. Kerhrley) 교장은 "소수인종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의 것을 살려주는 것이 우리 사회를 진정 잘 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문화 2세들이 자신들의 커뮤니티끼리 단결함으로써 다른 미국 사회에 배타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긍심을 갖고 그 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 기금을 지원받아 작성됐습니다.

"다문화 2세들 개인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운영돼야"

지경희 LA고등학교 전문 상담교사

미국 LA시 LA고등학교의 지경희(여·44) 교사는 지난 23일 "한국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 2세들의 올곧은 성장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학교의 다문화 2세에 대한 전담 상담 업무를 12년째 맡고 있는 지 교사는 "다문화 자녀들은 각기 다른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 부모의 역할 부재,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인의 특성이 아닌, 하나의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다문화 교육정책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 교사는 "다문화 2세들의 가장 불리한 점을 강점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야말로 한국의 공교육이 가져야할 의무이며 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기회"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지 교사와의 일문일답.

▲LA고교 학생 수와 인종 비율은?

-학생 수는 모두 2400명이다. 인종 비율은 히스패닉이 75%로 가장 많다. 이어 아프리카계 미국인 10%, 아시아인 8%, 백인 2% 등의 순이다. 한국인 학생 수는 200명에 달한다.

▲상담교사는 몇 명이나 되나?

-모두 10명으로, 교사 한 명당 240명의 학생을 지도하고 있다. 상담교사는 진학지도 전담과 학생 출석 및 가정방문, 진로지도 등 세 부류로 나뉜다. 나는 학생 출석 및 가정방문 전담 상담교사다. 상담교사는 한국의 임용고시와 같은 시험을 치른 뒤 자격증을 취득해 학생 지도를 맡고 있다.

▲상담 지도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

-학생들의 상담 내용은 대부분 마약·혼전 성관계·폭력조직 가담 문제 등인데, 우선 학생들과 잦은 상담을 통해 부모의 역할·가정 형편·가족 구성원 등을 파악해 둔다. 재학생이 3일 이상 무단 결석하면 가정방문을 통해 무단 결석을 한 이유를 파악한다. 해결책을 제시해주기 위해서다.

▲문제 해결 방식은?

-우리는 한국의 시청·구청과 같은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과 연계가 잘 돼 있다. 예를 들면, 며칠 전 15살 남학생과 18살 여학생이 3일간 무단 결석했다. 가정방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두 학생이 혼전 성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은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는 아이를 맡아 키워줄 수 있는 정부 지원 시민단체를 해당 학생들에게 주선해 주었다. 또 미혼모는 정상적으로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고, 공부에 흥미가 없는 남학생에 대해서는 기술을 익힐 수 있는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었다.

▲LA고교의 교육 목표는?

-학생들이 고교 졸업 후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전교생의 상향 평준화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우리가 개개인에 맞는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다. 다시 말해 공부에 흥미가 없는 학생은 예술·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적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의 다문화 교육정책에 대해 조언한다면?

-2세들이 한국 사회에서 '영원한 타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또 학교는 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향해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들도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처럼 무궁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